

# 해외 최신 의약뉴스

편집인 남궁형욱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무정보팀장  
약학정보원 학술자문위원

## 개요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복약 이행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본인이 만성질환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리 때문이며, 동기부여를 위한 상담과 같은 정신 사회학적 방법들이 복약이행을 개선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 밝혀졌다.

## 키워드

만성질환, 복약이행, 동기부여

### 약물에 대한 낮은 복약이행이 문제를 유발 [Oct 11, 2012, AJHP News]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처방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본인이 만성질환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리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카고, 일리노이대학 약국 실습 임상 교수인 브루스 램버트는 9월 10일 의료기관 조사 및 질 관리 단체가 후원한 컨퍼런스에서 복약이행문제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설명했다.

램버트는 “환자들은 자아에 대해 확고한 개념을 만들고, 자신의 모습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자기 인생에 포함되는 것을 싫어한다. 특히 만성질환 진단은 환자의 삶에 많은 혼란을 주며, 질병 치료 약물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자아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데, 약 복용을 거부 하는 것은 환자가 자신의 이미지를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환자에게 동기부여를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정말 환자들에게 동기를 부여 하는 것은 더 나은 자아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약물이 이를 돕는다면 환자들은 약물을 복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복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램버트는 부연해 말했다.

램버트는 환자들이 자아회복에 대한 해결책으로 약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료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고혈압 약물이 발기부전을 일으키듯이 약물 치료 그 자체가 환자 자아에 커다란 위협을 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램버트는 단순한 복약지도 시행에서 벗어나 동기부여를 위한 상담과 같은 정신 사회학적 방법들이 복약이행을 개선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2008년에 발표된 Medco 헬스솔루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 피보험자의 51%가 만성 질환 때문에 하나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지만 대략 절반 정도의 환자들은 처방받은 대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했다. 2009년 NEH(이전 뉴잉글랜드 의료보험)에 따르면 총 의료 지출의 13%, 연간 2,900억 달러가 소요되는 약물관련 문제의 하나로 낮은 복약이행 을 언급하였다.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인 신시아 랜드는 복약 미준수는 단순히 약 복용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랜드는 만성 질환자들은 심지어 고혈압 이나 고지혈증과 같이 불편증상이 없는 환자에서도 자신의 여 생을 위해 매일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 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이 약물이 필요하다고 정말로 믿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복약 준수와 같은 용어가 미준수에 대한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하향식 의료학적 권위주의적 시각을 반영한다고 언급하고, 복약 미준수에 대해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 등의 복약 이행에 대한 개인 책임에 대해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그녀는 이러한 방법은 개개 환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제재 받는 취약계층을 양산하며, 의료의 불균형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알리미, 현금 인센티브 및 기타 개입을 통한 조사에서 몇몇 그룹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으나, 약물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알림 시스템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문::**

<http://www.ashp.org/menu/News/PharmacyNews/NewsArticle.aspx?id=3798>

